



# ‘수상경기 메카’ 장성군

## 사계절 스포츠도시 꿈꾼다

배구 명문 경기대 전지훈련 유치…홍길동체육관·군민회관서 구슬땀



장성군이 스포츠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사계절 스포츠도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장성군은 배구 명문인 경기대 배구선수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장성군 홍길동체육관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대표로서도 한 시대를 풍미한 거포 이상열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선수 15명과 임원 5명 등 총 20명이 홍길동체육관과 장성군민회관에서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전지훈련 일정은 오는 9일까지 12일간이다.

경기대 선수들은 훈련에 없는 지난 주말엔 축령산·백양사 등 지역 탐방하며 문화체험도 했다. 6일엔

홍길동체육관에서 조선대학교 배구팀과 친선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장성군체육회(상임부회장 전계택)는 “장성군을 전지훈련지로 택한 이상열 감독과 선수단에 감사를 표하고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상열 감독과 선수단이 이번 등록 전지훈련을 통해 올 한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다른 종목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신안서 수학여행의 ‘인생추억’ 남겨요”

여행사에 관광 인센티브·임자도 체험비 50% 지원

신안군은 미래 잠재적 관광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로시티와 천일암의 고장 ‘증도’와 평사 30년 대관해수욕장, 아들 가수 김진우 고향으로 유명한 ‘임자도’를 대상으로 신안군이 수학여행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수학여행 유치 여행사에게는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임자도는 청정갯벌에서 갯벌체

험과 갯고랑 카약체험, 그리고 12km에 달하는 대관해수욕장에서 승마체험은 기하 인생여행지로 손꼽을 민�다.

여기에 KT 기가아일랜드에서 운영하는 드론 체험교육과 AR·VR과 같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할 예정이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증도에서는 맨발로 걷는 갯벌프로그램, 소금을 만들어보는 염전체험, 아토피에 특별한 소금동굴 체험 등 남

리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깜깜한 밤에 떠나는 ‘별 헤는 섬’ 프로그램은 해변 파도소리와 함께 밤이 나는 별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임자도와 증도는 학생들의 학습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되었다”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도는 한국 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임자도는 행정자치부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된 바 있다.

### 함평군, 기생충 퇴치사업 집중 추진

기생충 양성을 높게 나타난 3개 면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

함평군 보건소는 기생충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기생충으로부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생충 퇴치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생충 양성이 높게 나타난 3개 면을 기생충 퇴치사업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보건소는 지난 달 사업 대상지역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퇴치사업의 중요성,

기생충 예방방법, 사업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3월부터는 지역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체ヘル, 체변검사, 설문조사를 통해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긴급검사와 치료제도 지원한다.

박 소장은 “기생충 예방을 위해 민물고기는 반드시 먹고, 조리 기구는 끓는 물로 소독하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상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기(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 취익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개선·명예사직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청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만14세 미만 제외) 보장받을 수 있다.

서기동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구례군, 전 군민 대상 ‘단체자전거공제 보험’ 가입

구례군은 올해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장해 정도로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별금 1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 원 한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넓고 쾌적한 면사무소 신청사 준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면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영광군, 봄철 산불초동진화태세 확립

영광군은 본격적인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2.1~5.15)을 맞이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 순찰활동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조회회 훈련을 통하여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산불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농산물 소각을 금지하고 영농을 위해 소각이 필요한 지역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공무원 입회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공동 소각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방침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군에서는 산불방지자를 위하여 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2명을 선별하여 군과 읍·면에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과 산불발생 원인, 예방 대책, 효율적인 진화방법 등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신형 산불진화차량 8대와 등집펌프 500개, 헤드 랜턴 300개, 쇠갈고리 50개, 마스크 300개를 구입하여 각 읍면과 실과소에 배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